

최진영 전 남원시장,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로

최진영 전 남원시장(59)이 4월 1일자로 1953년 창간된 코리아 헤럴드 대표이사 겸 사장에 취임했다.



주)헤럴드는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언론의 사명에 충실 하면서도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미디어 콘텐츠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의 1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지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최진영 전 남원시장을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최진영 신임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는 전국 최연소로 민선2,3기(1998-2006) 남원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과감한 시정개혁을 통해 권위주의 행정을 타파하는 등 행정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면서 혁신과 변화의 아이콘으로 주목 받았던 인물이다.

최진영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코리아헤럴드는 지난 70여년 동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해왔고, 한류컨텐츠를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코리아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한국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디어 컨텐츠 그룹으로 도약 시키는데 헌신의 힘을 쏟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촌인력 부족 해소·풍년농사기원

전북농협·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영농발대식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본부장 김주성), 삼기농협(조합장 박기배)과 함께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한 '2021년 영농지원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를 1일 익산시 삼기면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대식 후 삼기면 일원에서 딸기 상토작업에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적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촌일손돕기나 자원봉사 신청도 현저히 줄어들어 농촌 현장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와 전북농협은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하고 영농철 일손돕기와 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올해도 농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번 영농지원발대식을 함께 개최했다.

김주성 본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겠다"며 "그 외에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전북 지역 460여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불투명해 영농철 농촌인력이 부족하다"며 "전북농협은 영농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6월까지 농촌현장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익산 평화지구대, 익산농협 직원에 감사장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는 1일, 보이스포싱 범죄를 예방한 익산농협 동산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익산시 동산동 익산농협에서 근무 중 창구에 예금 3천 만원을 인출하려 온 여성에게 인출 이유를 묻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인출해 놓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대답을 듣고 보이스포싱임을 직감하고 추가로 질문하여 시간을 끌면서 신속히 112에 신고하는 등 민첩한 대처로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전주파티마시협, 전북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전주파티마시협(이사장 양춘제)이 보이스포싱 범죄를 예방한 공로로 지난달 31일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 치안감)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전주파티마시협에 따르면, 상산지점에서 근무하는 이승아 직원은 지난 3월 25일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2천만원 예금을 중도해지 하려고 하자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국제전화로 걸려 온 보이스포싱 사기 전화를 확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전주파티마시협은 이미 보이스포싱 예방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받은 바 있으며, 그간 직원들의 노력으로 보이스포싱 예방의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포싱 예방을 위해 고객 현금 인출 시 문진표 작성과 고객에게 경각심을 갖기 위한 예방교육 또한 주의 깊게 실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고산농협·고향주부모임, 농촌일손돕기 실시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1일 고향주부모임(회장 한정희)과 함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고산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과 직원 등 20여명은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수박모 심기를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국영석 조합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농철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대 레슬링부, 전국대회서 '단체전 2위'

전주대 레슬링부(감독 박진규)가 '제39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대학부 그레고로만형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 단체전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 철원군에서 열린 제39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전주대 운동처방학과 4학년 강현수 선수(87kg), 2학년 이효진 선수(63kg), 1학년 정상연 선수(82kg)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경험이 적은 1학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이례적인 일로, 정상연 선수는 결승에서 부산경성대 선수를 상대로 앞목돌리기 기술로 4점을 획득하는 등 최종 5대 1로 승리를 거두며 우수한 기량을 뽐냈다.

이어 4학년 권정을 선수(97kg), 3학년 윤건형 선수(87kg)가 은메달을, 3학년 정용규 선수(77kg), 2학년 윤유민 선수(67kg)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강현수 선수는 "실업팀 입단 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관리도 하면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해 올해 남은 시합 잘 마무리하고, 실업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하며 울림



피에도 출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규 감독은 "기본적인 체력훈련 외에도 선수들이 안정감을 찾고 기복을 줄일 수 있도록 정신력을 키우는 등 심리적인 훈련에도 초점을 맞췄다"며,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모두 신뢰하고 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010-272-9417	송천지사 256-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8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858-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부산림청, 봄철 산불예방 홍보 강화

서부지방산림청은 청명과 한식 및 영농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과 산행, 성묘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율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1일부터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서부청은 소각행위 단속, 산불위험성에 대한 홍보, 산불위험 조기발견 시 사전조치 등 산불예방을 위해 5개 관리소와 주중에도 국유림 연접지역 및 과거 산불발생지역 등 산불위험지역에 직접 찾아 홍보활동 및 단속업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쌍치파출소,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적극나서

순창경찰서(서장 김중신) 쌍치파출소는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기관 종사자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 현금(1,000만원 이상)을 인출 시 또는 은행 업무 중 누군가와 계속 해서 통화를 하거나, ATM 기기를 이용해 고객의 현금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송금 또는 인출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 범죄 의심되는 경우 112신고 토록 하는 연계 홍보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 상대로 피해 예방 착안사항으로 체크리스트작성 배부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 당부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